

BK.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 2차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 회의

ysppy. cyworld. com

발신: 15대 총여학생회 반성폭력팀

수신: 오늘도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2003.2.11

1. 보고 안전

- 총학생회/총여학생회/단대 학생회/자치단체
- 내규개정 홍보 상황
- 교양 진행 상황

남: 교양 X. 단대내 C타기부터 여학생회 교양사건까지
수행되. 과/반 차원에서 사전에 개정 필요,
문: 꼭 오는 사람이다. 동아리.
사태: LT (2.3-4) 사원 아 교양 사례 교양
주요.
공대: 각 반 차원에서 일종의 운영. 실시.
아교양 운영
이교대: 이교대 운영.
새교대: 130 명으로. 2시

2. 논의 안전

- 연성뿌연 1년 활동
- * 2월: 새터 내규를 통해서 성폭력에 대한 첫 문제제기의 기회. (새터 내규 홍보, 교양)
- * 3월: 새터내규. 새터내규. 새터내규.
- * 4월: 반성폭력 워크샵,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대동제
- * 5월: 단대 자치규약 제정
- * 6월: 현장활동 내규 관련(제정, 시행, 교양)
- * 7월: 내부 세미나
- * 8월: 반성폭력 매뉴얼 발간 준비 작업
- * 9월: 반성폭력 매뉴얼 발간,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연고제
- * 10월: 새터내규
- * 11월:

- 새터 내규

* 교양 일정

단위위, 과/반 선배들, 조장들- 18일 이전까지

새내기 교양- 오퍼 기간 중

* 교양 내용/방법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앞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성폭력'이 될 때는 어떻게 대처할까와 같은 주제로 모둠별 모임을 진행하고 발표하는 식의 방법.

100401
5628200

* 영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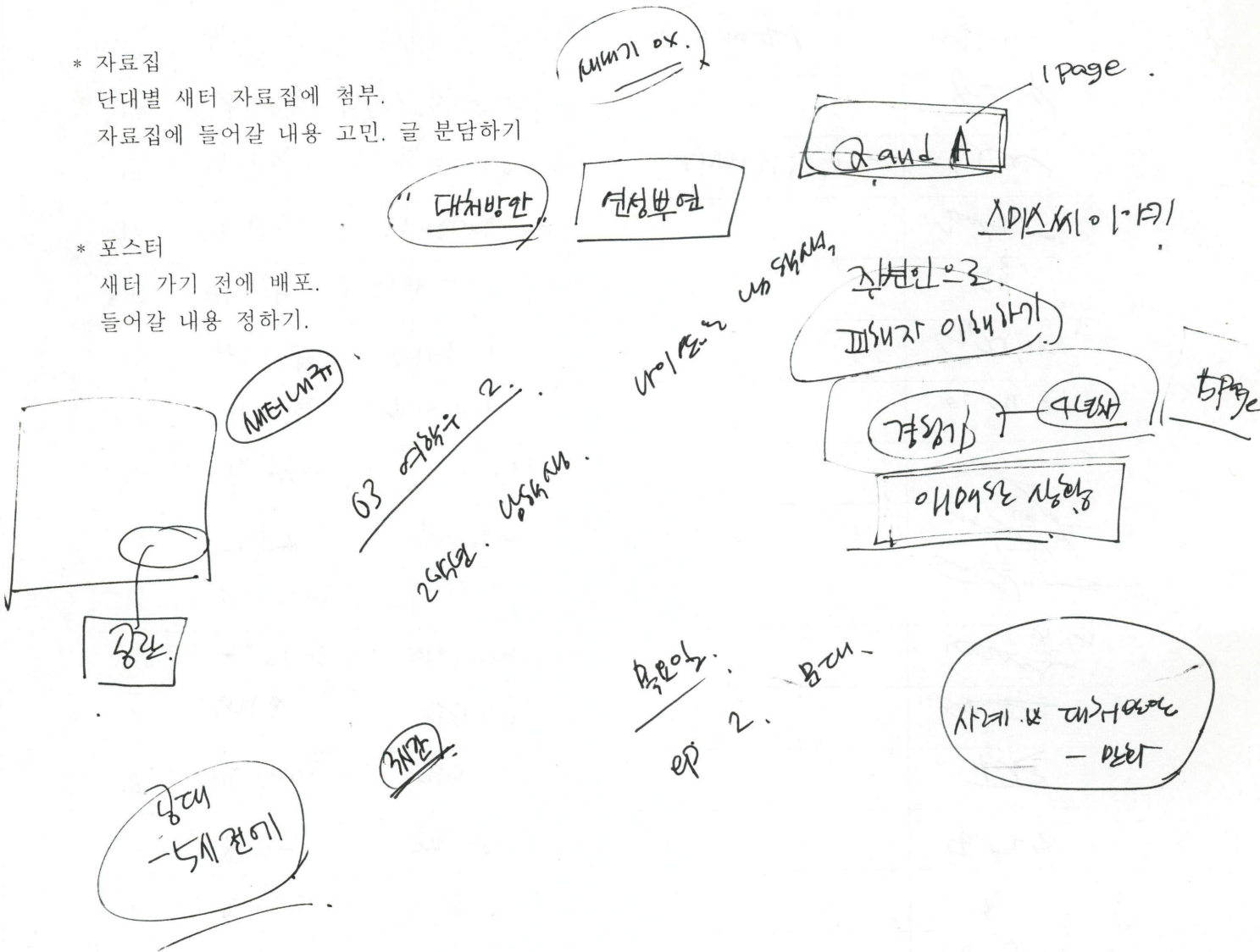
오티 기간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새터 기간은 어떨까?)
배역 정하기. 촬영 일정 정하기.

*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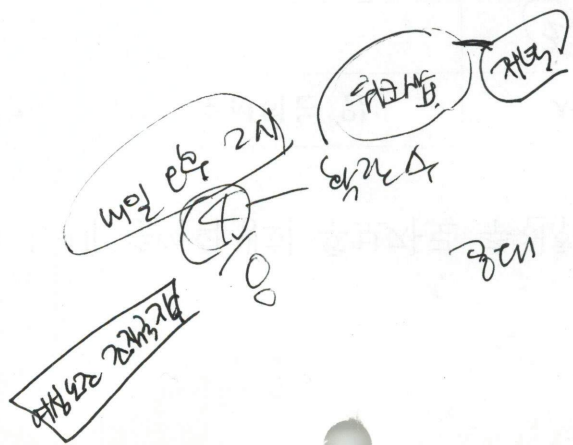
단체별 새터 자료집에 첨부.
자료집에 들어갈 내용 고민. 글 분담하기

* 포스터

새터 가기 전에 배포.
들어갈 내용 정하기.



방역 문제 문화 사회 경제 문제 이와 상호 문화 문제 함. 방역, 총여부



제 3차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 회의

발신: 총여학생회 반성폭력팀

수신: 성폭력 없는 새터 준비에 바쁘신 여러분

2003년 2월 21일

1. 보고 안건

(총학, 총여, 단대학생회, 자치단체)

* 내규 교양(운위 교양, 선배들 교양, 새내기 교양)

* 내규 자료집

* 영상물

* OT당일 평가

* 총여에 신고 된 사건

'반대 새내기' 신요 공약, 총여타리 연대 노랑배달함.
법대학생회 연초해의 측면.

법대 사건 발생 OT 마지막도. 공약함께. 새터전 교양, 새터 자치에서.
법대 법현(반. 새내기 보러서. 선배들. 교양강행. 공대. 법대. 이과대 - 새터.

이과대.

문제가 몇이나.

2. 논의 안건

* 단대별 새터 장소 문제는 없는지

사하대.

* 신고함 설치

* 포스터 부착, 수거하기

* '새터 내규 사업' 분담금

* 18일 오전 응원 오티 마초맨 관련

법대: 마초맨 노점.

단어의 문제인가?

법대 내부에서 이야기하길래 -

매너스

3. 다음회의

오티 새터 평가문서 꼭 작성!

포스터 꼭 가져가세요.

5월을 준비하면...

자기자립 대응 할것이다.

생라대 vs 가해생각

연세백연

입장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다.

사실 보도?

제 4차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 회의

발신: 총여학생회 반성폭력팀

수신: 성폭력 없는 새터 준비에 바쁘신 여러분

2003년 3월 5일

늘 여강, 서영, 황수영에게, 노래방, 새터

1. 보고 안건

(총학, 총여, 단대학생회, 자치단체)

비대위

OT

새터 준비, 새터 간담회

2. 논의 안건

* 오티/새터 평가

각 단위에서 작성해온 평가문서를 중심으로 이야기 해봅시다.

총학 - 새터 반대정확 차원 교양 X? OT 기간 영상물 X? 교양 X. 7반, 8반 교양 X.
총여 - 마초맨 부르기, 파티 반마다 반성하러 불려서, 조별하는 분위기도 X. 화가 애매하게 가지고 나가 나가!
문대 - 문제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형식, 질의응답 이야기 X. 지아대, 문과대, 학부원은 항상 많지는 않아요

문대
산대
이과대
공대
법대
사화대
신대
생과대
의치대
기타

영웅 응원 마초맨 X, 새터에서 마초맨 X, OT 들었는데 영상물 15-20분 교양, 생강, 지극체하는 변형, 조영희 진행
이거는 뭐든지 해봐 FM X, 이거는 FM 강의에 들어와서, 반성하는 FM 강의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
새터에서 마초맨, 새터 강의대 교양, 새터 파티, 개별평가, 별다른

* 마초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단대별 자치규약 제정 어떻게 준비해나갈 것인가 3월에는 반성폭력 교양 학교를!

개교식 영상물 ↑
• 미안함을 나타내, 이쁘다?
여자기수, 영상자료
영상자료 - 영상자료
사형가 = 끝내
문제점 지적받았
영상 바자회, 문북기.

신규함 설치하.
제반적인 양화 바꾸기 X.
회화하, 거북강, 난강

연성뿌연

애널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연성뿌연의 입장글

연세애널스는 2002년 12월호에 'sex in yonsei' 라는 기획 기사로 연세인의 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 26페이지에 'spotlight'란에는 연대 중앙도서관 남자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화여대생' 뿐만 아니라 그 글을 읽는 여성들이 성적 모델감을 느낄 만한 글들이 적혀있습니다.

자세히 쓰는데.

이 화장실 낙서가 애널스에 실리게 됨으로 해서 애널스를 보는 이들이 '환경형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성폭력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낙서가 쓰여 있다 하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기 ~~위~~를 위해서라도 직접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신중하게 쓰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별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야기를 해라야.

뿐만 아니라 애널스의 24페이지에는 포르노에 관한 설문과 사진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포르노그래피는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성행위의 도구로 표현해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만족시키는 것에 불과한 ~~성폭력~~입니다. 성과 관련한 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여성들에게 폭력으로 다가오는 포르노그래피를 성문화의 일부로 전제한 이 설문 조사는 그 결과가 사실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성폭력인 포르노그래피를 합리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에 동조하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또한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설문과 함께 포르노그래피가 사진으로 실려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성폭력입니다.

애널스는 학내 언론으로서 이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절대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쓰게!

문과대 새내기 새로 배움터 평가

문과대 여성주의 모임 모반

모반이 문대 새터에 참여하게 된 것은, 문과대 동아리 협의회의 한 단위로서의 참여라는 의미도 있으나,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의 소속 단위으로써, 문과대 학생회와 더불어 새터 반성폭력 내규와 관련된 사항을 각 과반 단위와 공유하며, 그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활동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1. 신고함

성폭력 사건 신고함의 설치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에 각 학생회의 의무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단과대 학생회가 새터를 떠나기 전 마지막 연성뿌연 회의 자리에서 성폭력 사건 신고함에 대한 논의 즉, 신고함은 아무나 쉽게 열어볼 수 없는 튼튼한 재질로 만들고, 설치 장소는 피해자 및 신고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인적이 비교적 드문 곳이 좋다는 등의 이야기가 공유되었습니다.

문과대의 경우, 지난 연성뿌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인지 출발하기 전에 신고함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새터 장소에서 모반의 건의에 따라 신고함을 만들어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 성폭력 사건 신고함의 위치와 사용에 관한 학우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붙기는 하였으나, 각 반 혹은 방마다 성폭력 사건 신고함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함 준비가 늦어짐에 따라 각 방에 새터 내규 포스터를 붙일 때, 신고함의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2. 새터 반성폭력 내규 부착 및 수거

방 배정과 함께 배포되어야 하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 포스터가 조금 늦게 각 과반과 방에 배포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각 과반과 방에서 새터 내규 포스터를 부착하면서 내규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전달받고 공유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모반이 각 방별 시간이 진행될 때 각 방을 돌아다녀본 결과 대부분의 과반/방에서 포스터를 붙여 놓았으나 내규 포스터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기 힘들었습니다. 포스터를 붙이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포스터를 보면서 새내기들과 선배들이 함께 새터 내규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짧게라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내규 포스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롭게 만들었으나 마지막 날 새터를 떠나오면서 내규 포스터의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학우들의 생각을 모으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포스터가 잘 붙여졌는지 확인하러 돌아다니는 중에 불꽃 5반 학우들이 있는 방 근처를 지났는데 불꽃 5반에서는 반 내부에서 반성폭력 내규에 대한 자보를 써서 붙여 놓았으며 내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선배들의 연락처를 자보에 명시하여 새내기들이 내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깊었다.

과/반 문화 경험대회.

자기자랑

도

정리

9반 도식화 평가

내규 새터

새터

10
숙박물 여자들
동료사향은
전국도 불상감기

10반 9반

관하는 시간이 정해져서

남게 공부할 수.

16반

해가 못하기

2003년 오리엔테이션 평가

-총여학생회 반성폭력팀

1. 내규개정 홍보

-지난 1월 27일 학간수에서 반성폭력 내규가 개정되었다. 첫날 저녁 총여학생회의 간단한 발제와 공청회(질의 및 응답)를 거쳐 둘째날 저녁에 있었던 학운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각 단대 학생회에서는 OT와 새터를 준비하는 각 반의 선배들에게 내규가 개정된 사실과 어떠한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이후의 내규 교양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했다.

-내규 개정안이 통과되고 열흘 이상이 지난 2월 7일 첫 연성뿌연 회의 자리에서 대부분의 단대가 내규 개정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각 단대의 홈페이지 개통이 늦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측면도 없잖을 것이다. 그러나 과/반 커뮤니티에 내규 개정 사실을 알리고 개정된 내규를 올리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으리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단대 학생회의 홍보 과정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다.

-이후 각 단대 홈페이지가 개통되면서 각 단대에서 내규 개정 내용이 공유되기 시작하였다. 단대 학생회 홈페이지나 과/반 커뮤니티에 내규가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공지되었는데, 교양을 실시하기 바로 전쯤에 공지된 단대가 대부분이었다. 교양까지는 2주정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거의 막판에 다다라서야 공지가 된 것을 보며 각 단대의 내규 개정 홍보와 공유 과정이 너무 나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홍보 과정 자체도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 단대별 내규 교양

-연성뿌연에서의 교양에 대한 논의는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대처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교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성폭력은 엄연한 범죄이고 성별 권력관계 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각 단대에서는 단운위 교양이나 과/반별 교양, 선배 교양이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었고 내규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각 단대의 운위 자리에서 내규에 대한 교양을 진행했던 총여학생회의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교양 사실이 미리 공지되지 않은 단대가 있었다. 미리 예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양이 진행되다보니 단운위에 참석하기 위해 온 운위원들도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교양 진행도 잘 되지 않았다. 두번째, 내용이 잘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양이 진행되다보니 단순히 커리 내용에 대한 공유에 초점이 맞추어져 더 깊은 이야기가 나누어지지 못했다. 세번째,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단대가 많았다.

3. 자료집

-단대별 새터 자료집에 총 15페이지 정도로 첨부되었다. 총여학생회와 법대, 사회대에서 자료집 글을 분담하였다. 내규 전문과 성폭력에 대한 Q&A, 주변인으로서 피해자 이해하기, '스미스 씨 이야기' 등이 포함되었다.

-생과대의 경우 연성뿌연의 이름으로 제작된 내규 관련 자료가 단대 자료집 내 포함되지 못하였고 단대 자체적으로 내규 전문을 실었다. 작년에 문대에서 전달되지 않은 새터내규 자료집이 추가로 배포되었다. 다른 단대들은 연성뿌연 커뮤니티에 올라간 글을 각 단대의 자료집 속에 포함시켰다.

4. 영상물

-일상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이 성폭력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그려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새내기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연성뿌연에 참여하는 분들과 각 단대 학생회와 총학의 집행부 분들, 새내기들이 출연하였다. 촬영 과정에 대해 기본 지식도 없었던 총여학생회에서 기획과 촬영과 편집을 맡아 진행하였고 OT 둘째날 아침에 CD를 배포하였다. 인력이 너무 부족하여 예상보다 제작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다. 또한 배포 과정에서 각 단대 학생회에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CD를 찾아가라고 몇 번이나 전화를 하였으나 제때 찾아가

지 않은 단대가 너무 많았다.

-사회대와 상대에서 영상물이 상영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재미있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목소리가 좀 작아서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영상물이 만들어지다보니 새내기들이 성폭력의 심각성을 느낀다기보다는 그저 재미있는 상황이라고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는 평가가 있었다.

-상영 이후 교양이 실시되지 않은 단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상물에 대한 교양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시키는 자리를 가졌음이 좋았을 것이다. 혹시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입생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성폭력 사건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좀더 충실한 교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포스터

-말풍선과 그림 이용, 부드럽고 재미있는 분위기와 함께 내규 전문을 싣기로 하였다. 공란을 사용하여 단대별 신고센터 및 여성주체 연락처 적을 수 있도록 했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각 방에 포스터를 부착한 이후 수거해 오기로 하였다.

-20일부터 포스터 배포가 시작되었는데 포스터를 제때 곧바로 찾아간 단과대가 매우 드물었다. 몇 번씩 전화해서 독촉(!)을 해야만 했고 먼저 연락해서 포스터를 가져가겠다고 한 단과대는 한 군데도 없었다.

물론 OT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고 새터를 준비하느라 각 단대의 집행부들이 워낙 바쁜 중이었을 것이므로 포스터 배포가 지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번 OT 및 새터 준비 사업이 연성뿌연의 명의로 함께 이루어졌음에도 포스터 배포(이 포스터에는 '연성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라는 공동 명의를 뚜렷이 들어가 있다!!)시-이는 CD 배포시에도 마찬가지였다-총여학생회가 연락하기 전에 먼저 포스터 및 영상물 CD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단과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점이 아니었나 싶다. 각 단대의 회장단들이 연성뿌연의 한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주체적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할까? 앞으로의 연성뿌연 사업에서는 '총여학생회의 지시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연성뿌연의 분명한 주체로 정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6. OT 당일 평가

-이번 OT 기간에도 여전히 예년과 비슷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학내외에서는 여전히 FM이 진행되었고, 신입생들끼리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PUSH UP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 남녀가 섞여 있었고 치마를 입은 여학생에게도 똑같이 강요되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옷을 벗어 길게 연결하는 게임을 하여 상의를 입지 않은 남학생들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였다. 또 단대의 포스트 게임 중에는 '섹스 여관 어찌구' 하는 팻말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어 총여학생회 집행부가 전원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으며, 법대의 경우 마지막 날 법현 1반에서 새내기가 가해자가 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각반 주체들이 소집되었다. 또한 OT 과정을 거치며 각 단대의 여성 주체들이 소외되고 있는-소위 '찍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OT 첫째날 오전에 응원단이 마초맨을 불렀다. 간호대와 생과대, 공대의 몇 반이 자리에 앉아 응원을 거부하였으나 이과대에서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응원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중운위 자리에서 마초맨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제기되었음에도 응원단의 마초맨 진행시 즐거이 참여하는 단대가 있었다는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당시 응원단 시간에 참여했던 모든 단대가 함께 마초맨을 거부하는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했다면 이후 생과대와 응원단간에 불필요한 마찰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마초맨을 성폭력이라고 인지하는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여전히 마초맨이 성폭력인지 논의해보자고 제의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사실'을 왜 '사실인지' 논의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마초맨에 대한 정확한 입장-마초맨을 부르는 것은 성폭력이며 따라서 우리는 마초맨을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하루빨리 필요한 것이다.

제 5차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 회의

발신: 총여학생회 반성폭력팀

수신: 연세뿌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2003년 3월 12일

1. 보고 안건

(총학, 총여, 단대학생회, 자치단체)

2. 논의 안건

* OT/새터 평가

아직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단위들에서 준비해온 평가문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문대

상대

이과대

공대

법대

신대

생과대

가타

반성폭력 팀. 학과별. FM 많이하네. 연세 라/비트 여성주체 모임

FM. 우리 건지하게 받아들이지 X. 1. 마조영. 대석

평가문서 아랑 X. 내국의 유형.

응원단

새터. 민중가요 -

선배들 교양 필요.

마조영

교과서 선배.

* 단대별 자치규약 제정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반성폭력 교양 학교 준비

중요의 제안

5월. 4월. 공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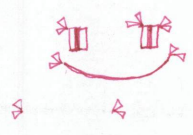
선배 - 연세 4개 강령회

자기평가서

(제101)

뒷쪽이

II



제 6 차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회의록

일시 : 2003년 3월 26일 pm 6:00

참가자 : 총여 반성폭력팀, 사회대 회장 및 여성주체, 생과대 여성주체,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장소 : 총여학생회실

1. 단대별 자치규약 제정

- ⑩ 중운위에서 제안, 2~5개 정도의 단대에서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사회대는 운위에서 제안 이루어짐.
- ⑩ 사회대와 생과대 운위에서 제안.
-사회대 여성주체가 다시 발제할 예정. 31일 자치규약 제정을 위한 모임.
- ⑩ 자치규약의 필요성에 대한 학내 여론을 만들어내고 제정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
- ⑩ 5월 제정 가능하게 단대마다 일정을 짜 볼 수 있도록.
-참고자료 ; 서울대 사회대 자치규약.

2. 마초맨 관련

- ⑩ 마초맨을 성폭력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함에도 응원단측에서는 여전히 성폭력이라는 규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학우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없앨 수 없으며, 가사와 제목을 바꿀 수는 있다'는 입장. 그러나 가사와 제목을 바꾼다고 하여 마초맨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 ⑩ 마초맨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연세춘추의 하단광고나 총여학생회 잡지 'Day Dream'(이하 'Day Dream')의 지면, 왕자보 등을 통해 공론화시키기로 함.
- 응원단에게 마초맨을 부르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자신도 마초맨을 부르지 않겠다는 약속의 뜻을 담은 서명이 되도록.
- 목표는 5천 명, 4월 7일부터 시작해서 대동제 1~2주일 전까지 받도록 함.
- 다음 회의 때까지 서명지와 그 안에 들어갈 글이 나올 수 있게 준비. 사회대 여성주체 강나서영씨께서 글을 작성하시고 서명지는 총여학생회에서 준비, 포맷에 대해 다음에 좀더 이야기해보기로.
- ⑩ 정형화된 서명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해 보기로.
- ⑩ 마초맨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특집 기사를 'Day Dream'에 특별기고 형식으로 실을 수도 있을 것.

3. 연성뿌연 참가 단위 및 참가자 정리

- ⑩ 현재 계속 불참하는 단위,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단위들이 많아 고민을 공유하고 사업을 함께 진행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음.
- ⑩ 참여가 부진한 단위들에게 앞으로 계속 참여할 것인지 확인 및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기타

- 다음 회의는 4월 4일 금요일 4시.
- 자치규약 제정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는 연성뿌연 커뮤니티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